



법회후 한국과 미얀마 대중이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미얀마선원 개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여 스님(네번째), 우네은 미얀마 대사(여섯번째), 순드라 스님(여덟번째), 산디마 스님(열번째)의 모습.

# “좋아요... 기뻐요... 열심히 정진 할래요”

여여선원 미얀마 한국선원 문 열던 날

‘밍글라바(안녕하세요)’ ‘웨이 아다(반갑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가회동에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의 귀의처인 여여선원 미얀마 한국선원(원장 산디마, 이하 미얀마선원)이 다시 문을 연 날. 몸에 꼭 맞는 전통의상 론지(LonGyi)를 입고 있는 6명의 미얀마 남성 이주 노동자들이 서울 가회동 한옥촌 미얀마선원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한다.  
정신적 귀의처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곳곳에서 미얀마인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미얀마인들은 오랜만에 다시 만난 듯 서로 께안고, 악수한다.  
새벽 3시에 출발했다는 부산 여여선원 신도들도 일찌감치 도착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개원식 행사를 돕고 있다. 국제포교사회, 미얀마선원 한국후원회 회원들도 축하차 앞다투어 와서는 연신 싱글벙글이다.  
선원 때문에 들어서자 50여명의 한옥은 중간의 마당이 사라지고 입식구조로 개조돼, 포근함을 선사한다.

진다”며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정진의 마음을 간직하고 일제 중생의 행복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은 축사를 통해 “미얀마와 한국의 문화와 불교가 서로 교류되는 법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여선원 원장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행복하다. 우리의 본래마음인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자”며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산디마 스님이 이 행사를 계기로 더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개원법회가 끝난 후 참가대중은 정여 스님의 제안에 의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만남’을 합창하며, 미얀마선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법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미얀마 전통음식인 모



미얀마선원 개원 법회에서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미얀마인.

## ■ 전국에서 열리는 ‘외국인 법회’는?

몽골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등 아시아 불교국가 스님들이 한국 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 스님들은 자국어로 된 법회 개최 등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신적인 귀의처 제공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도 영어법회 등을 열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스님들은 현재 각 시절에 머물며 한국 불교를 배우거나 포교와 수행 지도 등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일조를 할 전망이다.  
조계종이 파악하는 한국내 외국인 스님의 숫자는 모두 64명. 서울 연등불교국제화관 일본 스님(방글라데시), 파주 보광사 와치사라 스님(스리랑카), 부천 석왕

부터 티베트 불교계와 교류하며 관련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 구미 남장사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한다. 부천 석왕사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운영,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을 돕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선재마을의료회와 펼치고 있으며, 서울 조계사와 인산보문선원, 인천 황룡사는 2005년 올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회를 마련하거나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역시 2004년 6월 조계종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를 개원, 외국인을 위한 법회, 한글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남양주 보광사는 티베트 스님 10명을 초청해 거주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흥원사도 외국인 스님들이 주로 머물며 수행을 한다.

외국인을 위한 법회 여는곳		
사찰 및 단체	대상	연락처
강화 연등국제선원	아시아 및 영어권 국가	018-306-5347
공주 무상사	영어권 국가	042-841-1293
구미 남장사	외국인 노동자	054-534-6331
남양주 보광사	티베트	031-594-1316
대전 자광사	영어권 국가	042-822-9220
미얀마선원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	02-762-5302
보성 대원사	티베트	061-852-1755
부산 광성사	티베트	051-243-2468
부산 남산선원	영어권 국가	011-9752-791
부천 석왕사	외국인 노동자	032-677-7771
서울 봉은사	외국인 노동자	02-511-6070
서울 조계사	몽골 네팔	02-732-2115
서울 흥원사	미얀마	02-822-1990
서울 황룡사	영어권 국가	02-902-2663
영주 현정사	영어권 국가	054-635-5629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	외국인 노동자	02-2011-1965
인천 황룡사	외국인 노동자	032-873-0747
파주 보광사	스리랑카	031-948-7700

강유신 기자

## 50여명 한옥 개조, 남방 불상 후광에 꼬마전등 ‘깜빡’ 위빠사나 수행 · 양국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법당에는 미얀마에서 모셔온 남방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부처님의 후광에 장착한 깜빡이 꼬마전등들이 이색적이다.  
개원법회가 시작됐다. 법회는 한국식과 미얀마 의식이 가미되고,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해 세계화된 법회의 전형을 느끼게 한다.  
이날 법회에는 개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산 여여선원 원장 정여 스님을 비롯해 육조사 선원장 현웅, 미얀마 순드라, 보덕사 주지 정안, 죽림정사 주지 정원 스님과 우네은(주한 미얀마대사관)대사, 암파이(주한 라오스 대사관) 대사 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후원회원등 200여명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다.  
미얀마선원장 산디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 와서 네차레나 이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모두가 불성이 있다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지면 너와 내가 없어

헝가(썰글수)가 공양으로 나왔다. 배식에 앞장선 아롱잠마, 자바실, 양갈라마, 영트윈 등은 신이나 연신 한국말로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라고 함께하며 외쳐댄다.  
2000년부터 미얀마선원 신도인 영튼원(35)은 “우리 미얀마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미얀마선원은 앞으로 한국인을 위한 위빠사나 선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얀마 성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한국의 주요사찰 성지순례도 개최해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 센터역할도 할 계획이다.  
미얀마 선원은 장기적으로 서울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미얀마 전통양식의 사찰도 건립할 계획이다. (02)762-5302

글= 김원우 기자 · 사진= 고영배기자

날마다 맑고 밝은 날 되소서

# 대한불교 대승종

사부대중 일동